

으므로 상기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병원을 찾아 의사의 치료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발열을 없애기 위한 해열제의 사용은 금하여야 할 것이다.

파라티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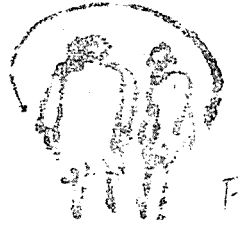
파라티프스는 S.typhi 이외의 살모넬라의 감염에 의하여 일어나며 주로 S.paratyphi A, S.paratyphi B (S.schottmülleri), S.choleraesuis에 의한다. 임상증상은腸티프스와 유사하여 감별이 어려우나腸티프스에 비하여 경과가 짧고 증상이 약하며 사망율도 현저히 낮다.

감염정도에 대한 예방대책 및 진단과 치료는腸티프스에 준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자=고려의대 대과 교수·의박)

마을마다 집집마다
기생충 검사받자

콜레라



정 희 영

몇해에 한번씩 찾아 오는 손님인 콜레라는 결코 반가운 손님은 아니다. 인도, 방글라데쉬가 고향인 콜레라는 수천만리의 긴 여행을 마친

특집 ● 여름철 전염병과 대책

다음에야 한국에 도착하고 콜레라의 침입을 막으려는 검역소직원의 눈을 피하여 상륙하기 때문에 해마다 찾아 들기는 어렵고 어찌다 한 번씩 침입하게 되지만 어쨌든 콜레라 환자가 생긴다는 것은 검역의 망을 뚫고 들어온 것이므로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긴 여행을 한 다음에야 한국의 어느 항구에 도착하던 옛날과는 달리 비행기를 타고 하루만에 서울에 도착할 수도 있는 지금은 검역관도 침입을 막기 어렵고 따라서 검역이 잘되고 있는 선진국가에서도 콜레라가 발생된다. 그러나 선진국가와 후진국가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선진국가에서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디로부터 콜레라균이 들어왔다는 것을 밝힐 수 있고 콜레라환자의 발생도 최소한도로 막아 낼 수 있지만 후진국가에서는 콜레라가 많이 퍼진 다음이라야 비로소 콜레라가 생긴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이 반감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것인지를 밝히기는 이미 때가 늦고 결국은 큰 유행이 생기게 된다. 한국에서는 콜레라균이 살기 좋은 여름철에 왔다가 살기 어려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어야 없어지는 것이 보통이니 한국은 방역면에서는 선진국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환자 또는 보균자(콜레라균을 가지고는 있으나 발병하지 않은 사람)의 대변으로 나온 콜레라균은 이들의 손에 묻었다가, 또는 대변 안에 있던 콜레라균이 물에 들어간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장으로 가서 자라고 발병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음료수나 음식물을 거쳐서 입으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콜레라에 걸리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콜레라가 유행할 때에는 끓인 물 또는 소독한 물을 마시고 음식도 생식하지 않고 익혀 먹으면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지극히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가족에게는 콜레라는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얼마동안이긴 하지만 의식할 수도 없고 나가서 물을 마실 수도 없어서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콜레라균이 체내에 들어간다고 모두가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콜레라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수십 명 때로는 백명에 한 사람꼴이 발병

특집 ● 여름철 전염병과 대책

하여 환자가 되며 나머지는 대변으로 콜레라균이 나오지만 환자가 되지는 않는다(보균자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발병하는 사람은 영양상태가 나쁜 이른바 빈민이 대부분이니 이들은 발병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수가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은 콜레라는 환자로부터 전염되는 것은 물론이지말 환자가 아닌 보균자로부터도 전염되고 이들 보균자는 외관상으로는 건강하여 검사하기 전에는 보균자임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주의할 길이 없으니 결국은 끓인 물과 익힌 음식을 먹이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콜레라에 걸리면 심한 설사를 하고 토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옛말에 토사곽란이란 것이 있지만 콜레라는 전염성이 강한 토사곽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설사하고 토하는 병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식중독도 같은 증세이지만 콜레라나 식중독은 의사도 환자를 보고 곧 구별할 수는 없고 세균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다. 따라서 콜레라

가 유행할 때에는 토하고 설사를 하면 일단은 모두 콜레라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의 치료는 토하고 설사하여 잃은만큼의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고 다른 좋은 치료방법이 없다. 대체로 어른이라면 6~7리틀 설사하면 수분이 부족하여 사망하며 콜레라환자는 잠시에 이만한 분량의 설사를 하게되니 수분의 보급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대량의 수분이 없어지기 전에 환자는 늘어지고 몸이 차가워지니 이때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가야한다. 혹이나 회복될까 하고 오랜시간을 끌게되면 때를 놓쳐 치료할 수 없게 되니 가까운 병원에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에서 환자가 마실수 있는 정도의 수분까지고는 부족하여 생명을 잃게된다. 그러나 수분의 보급이 빨라수록 좋으니 병원에 가는 도중이라도 환자가 마실수만 있다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콜레라는 빨리 의사의 손에 넘어오면 사망하는 일이 없으나 때를 놓치면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다.

<필자=가톨릭의대 내과교수·醫博>